

귀성 대신 선물... ‘비대면 설’, 준비하는 유통가

광주신세계, 내일부터 24일까지 최대 70% 할인 설 예약 판매 진행
롯데마트, 한우·샤인머스켓 세트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 한정 판매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비대면 명절나기’가 예상되면서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에 맞춘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다.

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 동안 2021년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최대 할인율은 건강식품 70%, 와인 50%, 한우 5~10%, 굴비 30%, 과일 20% 등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사과·배·한라봉 세트와 동시 꽃감, 로얄 양념 구이, 양념 왕갈비 세트, 수협 한아름 굴비 만복 세트 등 농수축산물 세트를 기존보다 2만~5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온라인 전용 상품 물량은 총 355가지로, 지난 설보다 2배 확대했다.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전용 상품을 사면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00만원 상당 SSG(썬)머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 상품은 SSG닷컴의 ‘선물하기’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6년부터 상대방 주소 없이도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SSG닷컴에는 식품부터 화장품, 패션잡화 등 1000만여 종의 상품이 마련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벌인다.

사전예약 판매기간 동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총 400여 개 품목의 세트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측은 올 설에도 고향 방문 대신 비대면 선물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설 대비 예약판매 물량은 30%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한우는 10%, 선아·굴비 20%, 와

인세트는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새롭게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 문을 연 전남 로컬푸드 전문점, 북구 두암동에 본점을 둔 해담촌김치, 장수한우 등도 지역 색깔을 담은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도 다음 달 1일까지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250여 개 품목이 최대 30% 할인 판매되고 있다. 엘포인트 회원이거나 행사 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할 고객은 정상이 대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는 하나를 더 주는 ‘덤 혜택’과 특정 카드로 구매하면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만원 이상 구매 때는 전국 무료 배송도 가능하다.

이번 사전예약 판매에서 롯데마트는 이번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한정 수량 준비해 선보인다.

먼저 최상위 등급 ‘무항생제 지리산 한우 1++ No.9 세트’와, 샤인머스켓·사과·배·한라봉을 혼합한 ‘샤인머스켓 혼합세트’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한 ‘산지특산물 세트’와 GA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성된 ‘GAP 세트’ 등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에르 KF94 마스크 세트’, ‘해피홈 핸드워시 세트’ 등 위생 관련 상품도 판매한다.

롯데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물에서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을 지난 설 대비 약 10% 가량 늘렸으며,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 주요 상품인 ‘화순 한라봉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냉장고도 맞춤형으로...광주 생산 삼성전자 ‘비스포크’ 출하량 100만대 돌파

20개월 간 월 평균 5만대씩 생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가전 ‘비스포크’(BE-SPOKE)의 누적 출하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비스포크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100만대 출하량을 넘어섰다. 20개월 간 월 평균 5만대씩 생산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한 모듈러 타입의 ‘비스포크 냉장고’를 처음 선보인 뒤 전자레인지, 인덕션, 식기세척기, 상업용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에 비스포크 컨셉을 적용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스포크 냉장고다.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주력으로, 에어컨과 공기청정

기 비스포크 가전을 생산 중이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전체 비스포크 가전 출하량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출시 6개월 만에 삼성전자 국내 냉장고 매출의 50%를 넘어섰고, 작년 말 기준 약 6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가전을 생산하면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계도 대폭 개선했다. 소비자가 주문 가능한 패넬 옵션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모듈화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 패넬은 탈부착이 쉬운 구조로 교체에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가전 100만대 출하를 기념해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행사 품목에도 비스포크 가전을 대거 포함해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이 비스포크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다.

집콕하며 즐기는 ‘밀키트’ 이마트 매출 20배 급상승

짜개·제육두루치기 등 인기

코로나19로 ‘집밥’ 문화가 주를 이루면서 지난 한 해 광주지역 ‘밀키트’ 매출이 20배 뛰었다.

6일 광주 4개 이마트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이들 매장의 ‘밀키트’(Meal Kit) 매출은 1년 전보다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밀키트의 식품 내 매출 비중은 2018년 9.1%에서 2019년 13.9%, 2020년 31.4%로 급성장하고 있다.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두부된장찌개, 애호박찌개, 감자찌개와 같은 국물요리와 잡채, 제육두루치기, 순대볶음 등 순이었다.

‘밀키트’는 쿂�박스 또는 레시피 박스라고도 불린다.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일종의 ‘반(半) 간편식’이다. 지난 2008년 스웨덴 스타트업 기업 ‘리나스 맛카세’(Linus Matkasse)가 정기 배송 형태로 처음 선보인 후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시장을 넓히는 추세다.

이마트는 지난 2017년 10월 ‘채소밥상’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밀키트 사업에 첫 주자로 뛰어들었다. 현재 이마트가 운영하는 밀키트 품목은 총 80여 종에 이른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간편가정식 못지않게 한번에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가 인기”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국물 요리 외에 다양한 요리와 신선한 재료의 밀키트 상품들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겨울 과일 인기 1위 딸기

광주신세계·이마트 할인 판매

겨울철 신선 과일 장사로 나선 딸기의 인기가 여전하다.

6일 ㈜광주신세계는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설향딸기’ ‘장희딸기’ ‘금실딸기’ 등 다양한 종류의 딸기를 1팩에 1만5800원에서 3만4800원에 내놓았다고 밝혔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고, 디저트용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딸기 매출은 130억원이 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3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마트 30여 종 과일 매출 가운데 딸기는 3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겨울과일의 대명사인 감귤(2위·14.3%), 포도(3위·11.7%)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7곳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딸기 상회’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장희, 금실, 킹스, 아리향 등 6가지 딸기 뿐만 아니라 신품종 메리퀸도 할인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조선훈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